

멜버저널

Vol.1029
14.10.'22
SINCE 2001



"코비드는 많은 불편을 줬으나 한류의 힘은 더 커졌어요"

모나쉬 대학교 한국학과 주최 제5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열려



“... 코비드 팬데믹은 우리에게 많은 불편함을 줬지만 한국의 영화, 드라마 봄은 엄청나게 커졌고, 그건 계속 이어져갈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어가 더 늘었고요. 그런가하면 ‘유튜버’ 라는 일종의 직업까지 생겼죠... 여러분 이제, 돌아온 일상에서 좋은 일만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발음, 몰입도를 올려주는 역양에, 좋은 내용까지 담아 제5회 모나쉬 대학교 한국학과의 정기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내이 치 린 레 (Nay Chi Lin Le) 양의 스피치 마무리 멘트다.

모나쉬 대학교 한국학과에서 매년 주최 진행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4 회째를 마친 뒤 그동안 코비드 팬데믹으로 열리지 못하다가 지난 10월 7일 (금), 그 다섯 번째 행사를 대면행사로 가졌다.

오후 5시 반, 모나쉬 대학교 코필드 (Caulfield) 캠퍼스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는 초급 5명, 중급 3명 그리고 고급반 8명 등 총 16 명이 참가해 멋진 경쟁을 펼쳤다.

김태성 모나쉬대학교 한국학 조교가 진행을 맡은 이날 행사는 앤드류 데이빗 잭슨 모나쉬 대학교 한국학 연구센

터장의 환영사로 막을 열었다.

잭슨 교수는 “오랜 시간을 지나 이렇게 대면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다시 열게 되어 기쁘다.”면서 “특히 올해 대회에는 새로 부임하신 이창훈 총영사님이 전폭 지원을 해 주셔서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으로 인사를 한 뒤 자신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애제자’ 김태성 조교가 진행을 잘 해 줄거라고 마이크를 넘겼다.

이어 축사를 하기 위해 단에 오른 멜번분관장 이창훈 총영사는 “한류가 지금처럼 알려지기 전인 1988년 부터 모나쉬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했다.”면서 지금은 BTS, 블랙핑크 등 한국을 모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가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참전용사 1만7천 여 명을 빼고는 한국을 아는 사람조차 만나기 힘들었을텐데 어려움 속에 시작을 했을, 그리고 지금까지 잘 발전시켜 와 주신 교수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여러분은 진정 다문화 사회를 삶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이 총영사는 “오늘 단순히 말하기 대회로 끝나지 않고 한국어 왜 가무에 능하며

또 한편으로는 왜 세계에서 하나 남은 분단국가인지 이해하는데 까지 이어질 바란다.”고 말했다. 잭슨교수도 한국식 영어인 “화이팅!”을 외치며 응원을 보냈다.

이어서 김태성 조교가 심사위원들을 소개했다. 35년의 한국어 교사 경험을 이어오고 있는조영애 웨이블리 한국어 학교장 겸 한인음악인협회장, 김수경 포인트룩(Point Cook)의 VSL(Victorian School of Languages) 교사 그리고 모나쉬대학교 한국학 연구센터(MUKSRH : Monash University Korean Studies Research Hub) 연구원 제시카 후인(Jessica Huynh) 박사가 이날 심사를 맡았다. 2022 한국어 말하기 대회 토픽은 ‘Life, Korea and Korean in the post-COVID world’ 였다.

가장 떨리는 마음으로 첫 순서를 끝낸 참가자는 초급반의 Shuen Yee Gillian Chan 양. 보험계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1학년 학생인 쉐 참가자는 비교적 차분하게 코로나 이후의 우리 및 한국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번째 등장한 Bao Long Elvis Tran은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생물의학)를 공부하고 있는 3학년 학생. 그는 등장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엘비스라



고 먼저 소개했고 객석 여기저기서 웃음 소리가 들리자 “왜요? 괜찮으세요?” 라고 너스레를 떨며 시작했다. 그는 한국음식 특히 김치찌개를 좋아하며 아이유와 봉준호의 작품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제 코로나 이후가 되어 보다 더 자유롭게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갈 계획이라고 밝힌 그는 코로나가 거의 안정되며 대면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좋다는 내용을 전했다. 같은 과목의 1학년 Kimberly Berger 는 스피치를 하며 다양한 동작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벌리는 요즘 네플릭스를 보면 한국어 자막을 띄운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며 한류는 지금의 인기를 넘어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Juan Santiago Ng Limbo 참가자 역시 생물리학 3학년에 재학 중이다. 그는 3개월 전 한국을 방문했다면서 매우 더웠던 기억을 말했다. 또 코로나 이후 K드라마의 인기는 더 높아졌으며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을 방문하고 싶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 ‘건강 조심합시다!’ 라는 인사로 끝맺음을 했는데 대부분의 한국인들도 잘못 사용하는 말을 그대로 써서 더 신기할 정도였다. (건강은 조심할 대상이 아니다. 잘 지켜야 하는 것일 뿐.)

한국어를 배운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Sofia Wang 양도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3학년 학생이다. 그녀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조심해야 할

일, 꼭 해야 할 일등을 열거 한뒤 자신은 냉면과 떡볶이를 좋아한다며 제주도도 보고 싶어 반드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중급반의 첫 주자 Rugmini Pillai 양.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2학년에 재학중이다. 그녀는 팬데믹 기간 동안 모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래서 전자제품, SNS의 사용은 급격히 늘어났으며 여행을 못하면서 오히려 매체를 통해 한국의 음악과 영화는 더욱 더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말했다.

다음 순서는 이날 참가자 중 최연소인 고등학교 11학년 Francis Bea Ruelo. 필리핀계 호주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프랜시스는 한국어를 배운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는데 몹시 유창하게 팬데믹 동안 늘어난 한국의 신조어들을 소개하며 이 속도와 함께 자신의 한국어도 팬데믹 동안 늘었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Engineering and Arts 2학년 그리고 한국학을 메이저로 선택한 Larissa Carbery는 한글을 배우게 되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무척 행복했다고 말했다. 한때는 어휘와 문법이 너무 어려워 포기할 뻔 했지만 국경이 재개방 되며 한국에 가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섰으며 지난 7월,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한국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부산, 명동에는 외국인이 정말 많더라면서 그때의 추억이 다시 살아나는지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재미있



앤드류잭슨 한국학 연구센터장



걱려사를 하는 멜번분관장 이창훈 총영사



진행을 맡은 김성태 한국학 조교수

었다며 경험을 들려줬다. 가장 높은 레벨의 참석자로 나온 Angel Sim-Yeng Choong 양은 2010년 팬데믹이 시작될 때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이제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최소한 대면으로 한국어, 한국문화를 배우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락다운이 없어져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며 추석에는 모여서 송편도 먹고 윷놀이를 하는 등 좋은 경험도 했다는



영예의 대상을 안은 Nay Chi Lin Le 참가자

충 양은 공부를 더 해야 하는데 한국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다는 게 문제라고도 얘기했다.

회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Pricilla Poernomo 양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달라진 점에 대해 아주 드라이하게 정보 전달처럼 이야기를 시작했으나 곧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으로 넘어갔다. 함께 집에 살면서도 일상이 달라 서로 보기 힘들었던 가족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가까워졌고 또 한국과 한국어는 더 유명해졌다고 프리실라는 설명했다.

Samantha Lee 양은 케미스트리를 전공하고 있다. 그녀는 집에서 일하게 되며 편해졌고, 좋아하는 K 팝 아이돌들의 팬미팅에도 온라인으로 참가하게 되어 정말 좋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계획이 어긋났다 해도 실망하지 말라며 결국 우리는 뭔가를 다 이루게 된다는 말로 스피치를 맺었다.

Abigail Ik Wen Young 양은 한국학과 더불어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있는 3학년 학생이다. 그녀는 좋아하는 아이들의 공연을 보고 싶을 때 티켓 값에 한국까지의 항공료와 체제비까지 계산하다가 포기하기 일쑤였는데 온라인 콘서트가 얼마나 편리함을 줬는지를 말한 후 코비드 기간 동안 정말 애써준 의료진과 무료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갖가지 온라인 포맷을 만들어준 기술자들에게도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들 덕분에 힘든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다

고 덧붙이기도 했다.

Karmanpreet Kaur Sukhija 양은 팬데믹 동안 본 여러가지 한국의 프로그램들을 이야기 했다. 먹방, 달고나 등을 말하고 또 먹방은 사전에까지 올랐다고 설명한 뒤 요즘 국경이 다시 풀리며 리벤지 트레블링이 유행인데 한류가 이렇게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경제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Nay Chi Lin Le 양은 대면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팬데믹 락다운 기간 동안 힘들었으나 개인적으로는 한국어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그러나 역시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모두 일상에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을 방문, 병원에서 코로나 이후 노인들이 외롭지 않도록 돕는 프로그램에 참여 해 일을 하고 돌아왔다는 Emma Chandler 양은 한국학과 Global Asia를 공부하고 있다. 그녀는 한국이 얼마나 코로나 대응을 잘 한 국가인지를 설명하며 한국의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영국 Warwick 대학 재학 중에 모나쉬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다는 Favour Emeka 는 10년 전 자신이 열한살 일 때 한국의 코미디 프로그램을 통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국어 실력이 아주 좋은 그녀는 코로나는 많은 사람들을 한계에 이르게 했으며 청년실업



엄격하게 그러나 즐겁게...
조영애, 김수경, 제시카 후인 심사위원

과 빈부격차의 폭이 늘어나는 폐단도 생겼다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다고 말했다. 즉 서로 지지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생겨났고 인류에도 다시 싹텄다는 것이었다. 페이스북은 이날 참가자들 중 가장 고급스러운 어휘를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열 여덟 명의 참가자는 그 우위를 가리기 정말 힘들만큼 그들의 최선을 보여줬다.

<30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22 페이지에서 받음>



2등 Francis Rue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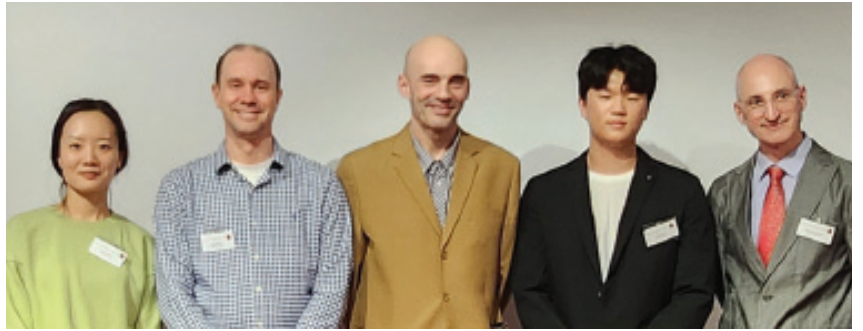
3등 Favour Emeka



4등 Kimberley Berger

참석자들이 샌드위치를 나누며 답소를 이어가는 동안 심사위원들은 아주 힘겹게 순위를 매겼다.

조영애 심사위원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한국어에 대해 잘 알더라”면서 “그들이 사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서로 한국어로 하는 걸 보면서 이들의 한국어 사랑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어 감동이



모나쉬 대학교 한국학과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 : 조혜인 조교수, 대니엘 피에퍼 조교수, 앤드류잭슨 센터장, 김태성 조교, 루씨엔 브라운 부교수 <왼쪽부터>

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회에 나오면서 자신의 원고를 외우지 않고 들고 나와 읽은 몇몇 참가자들에게는 아쉬움을 느꼈다는 솔직한 평도 함께 했다.

김수경 심사위원은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잘 해 놀랐다”면서 “이들이 사용한 콘텐츠들을 보면 영어로 된 것이 아니라 한국어 인터넷에서 찾아야 하는 내용들이어서 힘든 과정을 잘 거쳤다는 생각이 들어 더 대견했다.”면서 앞으로의 향상을 기대하면서 정말 즐겁게 심사를 했다고 말했다.

베트남계 호주인 후인 제시카 심사위원은 자신이 학생일 때 이틀처럼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나왔던 기억이 다시 떠올라 재미있었다며 우위를 가리기 힘든 이들을 심사하는 건 힘들지만 중요한 일 이었고 그럼에도 많이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감정들을 다스리며 냉정하게 점수를 합산한 결과 영광의 대상은 Nay Chi Lin Le 양이 안았다.

5천 불의 상금과 멜번분관에서 제공한 지구본 상품 그리고 트로피를 가슴에 안은 Le양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 원고 키워드를 메모한 종이가 파르르 떨릴 정도로 긴장했지만 그것을 잘 다스리며 전할 내용을 빠짐없이 잘 전한 Le 양은 올해 12월 연세대학교 겨울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인데 경비 마련까지 되었으니 더 신나게 한국을 경험하고 오겠다고 들

뜬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2등은 최연소 참가자였던 Francis Ruelo가, 3등은 고급 어휘를 구사한 Favour Emeka 양이, 그리고 4등은 초급반이면서 당찬 스피치를 해 준 Kimberley Berger 양이 차지했다.

멜번분관의 박수빈 인턴은 이날 잠시 시간을 얻어, 현재 멜번분관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사용, 어떤 정보를 알리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과 홍보를 했다. 참가자들은 설명을 들은 후 다시 질문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참가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국어 사랑, 한류 사랑 그리고 코비드 팬데믹 이후의 우리를 다독다독 감싸안으며 응원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었다. 한편 모나쉬 대학교 한국학과는 1988년 개설되어 오늘까지 꾸준한 발전을 계속해 오고 있다.

앤드류 데이빗 잭슨(Andrew David Jackson) 한국학 연구센터장을 비롯, 한국학 프로그램장 겸 부교수 루씨엔 브라운(Lucien Brown) 부교수, 대니엘 피에퍼(Daniel Pieper), 김태성 조교 그리고 조혜인 조교수가 후학 양성은 물론 연구센터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성인이 되어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참을성 있게 긴 여정을 가야 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한국어, 한국 문화가 좋아서 그 길을 택한 이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